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혜련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풍자교육을 위한 제재 적합성 연구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중심으로-

202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홍은영

풍자교육을 위한 제재 적합성 연구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중심으로-

김혜련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홍은영


인준서

홍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김명석 (서명  인)

심사위원 박복진 (서명  인)

심사위원 김혜련 (서명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풍자 교육에서 ‘웃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풍자 교육 제재를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II 장에서는 풍자의 개념과 풍자의 웃음인 ‘의도적인 웃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풍자가 비판의 측면과 웃음의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는 표현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풍자의 웃음은 자아 성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풍자 교육은 비판과 웃음에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III장에서 현재 2015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록 풍자교육 제재를 살펴본 결과 실제 교과서에는 풍자의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제재들이 다수 수록되었으며, 현재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쇄 매체로만 풍자를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올바른 풍자 교육 제재 제안의 필요성을 느껴 IV장에서 새로운 풍자 교육 제재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풍자의 두 가지 측면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재를 선정하고 그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는 최근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영상 두 가지를 제재로 제안하였다. 적합한 영상 매체 제재로 풍자를 교육하였을 경우, 풍자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풍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아성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풍자와 자신의 삶이 가깝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풍자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상 매체는 풍자의 맥락 파악이 수월하여 영상 매체를 활용한 풍자교육이 현재 교과서 속의 인쇄 매체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풍자의 웃음과 비판의 균형, 풍자 교육 제재, 제재 적합성, 2015 교육과정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4
1) 풍자관련 연구	4
2) 웃음관련 연구	6
II. 풍자교육을 위한 기초적 논의	8
1) 풍자의 개념	8
2) 풍자의 웃음	10
(1) 자연적인 웃음	12
(2) 의도적인 웃음	14
III. 2015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9
1. 풍자 관련 교육과정	19
2. 2015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	21
1) 본문 수록 제재	23
2) 활동 수록 제재	26
IV. 풍자교육을 위한 제재 제안	33
1. 제재 선정 기준	33

2. 제재 제안 및 분석	36
1) 제재 제안 사례1	37
2) 제재 제안 사례2	49
3) 풍자 교육 제재로의 가치	58
IV. 결론	5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교과서 별 풍자 정의	9
<표 2> 웃음 구분 기준	11
<표 3>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 풍자 관련 성취기준	19
<표 4>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 풍자 관련 성취기준 해설	20
<표 5> 국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21
<표 6> 제재 분석 기준	23
<표 7> 본문 수록 제재 분석	23
<표 8> 활동 수록 제재 분석	27
<표 9> 교과서 수록 만평	29
<표 10> 교과서 수록 그림	30
<표 11> 교과서 수록 공익 광고	31
<표 12> 교과서 수록 만화	32
<표 13> 제재 선정 기준	36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풍자 교육에서 ‘웃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 교과서에 드러난 풍자 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뒤 현시대의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풍자 교육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풍자는 ‘대상이 지닌 부정적 측면이나 모순점을 파악한 후 이를 웃음을 통해 비판하는 표현 기법’이다. 즉, 풍자는 비판적인 측면과 웃음의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풍자의 진정한 의미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풍자의 비판뿐만 아니라 풍자의 ‘웃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웃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단어일 것이다. 또한 평소에 우리가 짓는 웃음을 생각하면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기에 ‘풍자의 웃음 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거나 ‘웃음’을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풍자의 웃음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일상적인 웃음과는 구분되는 ‘의도적인 웃음’이기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웃음은 크게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풍자의 웃음인 ‘의도적인 웃음’은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특정한 대상을 비판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교화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습자가 스스로와 학습자 주변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웃음이다. 즉, 풍자의 웃음은 궁극적으로 자아 성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자아성찰 기능은 2015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는 ‘자기 성찰·계발 역량’¹⁾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1)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

가진다. 2022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풍자 본연의 의미를 살린 풍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풍자의 웃음과 비판에 균형을 맞추어 학습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풍자가 처음 언급되는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풍자의 웃음이 소거되거나 매우 축소되어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지 않은 제재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또한 현재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영상 매체를 배제한 채 시, 소설, 그림 등 인쇄 매체로만 풍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균형성을 잘 갖춘 영상 매체를 새로운 풍자 교육 제재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측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교과서 편찬 상의 유의점에 부합하는가’라는 제재 선정 및 제재 적합성 판단 기준을 세워 새로운 제재를 제안하였다. 이때 웃음과 비판 사이에 균형을 갖춘 풍자 교육은 영상 매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

풍자는 기본적으로 대상과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속해있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영상 매체는 인쇄 매체에 비해 학습자들이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인공들의 표정, 행동과 더불어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직접 학습자가 바라봄으로써 수월하게 맥락을 파악하고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관객의 웃음과 같이 타인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매체의 경우, 맥락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해당 상황에서 웃음을 짓지 못했던 학습자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해당 상황이 비판의 웃음을 짓게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더불어 영상 매체를 풍자 교육에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수월하다. 학습자가 교과서에 실린 풍자 소설이나 풍자시, 풍자 그림들을 통해 풍자를 학습할 경우 학습자는 해당 제재들을 ‘풍자를 교육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지고 온(혹은 만들어낸)’ 제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 학습할 경우, 자신의 삶과 풍자가 가까움을 인식할 수 있어 영상 속 내용에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거부감이 없어 풍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²⁾ 언급되는 것을 통해 학생의 실태를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여 영상 매체로의 제재 확장을 이루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풍자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타인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제재를,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타인의 반응이 제거된 영상 제재를 제안하고자 한다.

웃음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본연구에서 ‘해학’이 아닌 ‘풍자’ 교육을 주장하는 이유는 해학과 풍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학 또한 웃음을 동반하는 표현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해학은 풍자와는 다르게 웃음을 통해 대상을 비판한다거나 교화 가능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해학은 비판과 웃음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 풍자와는 다르게 비판이 존재하지 않고, 대상을 향해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등 웃음을 통해 정서 전달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해학은 대상을 감싸 안는 ‘정서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에 학습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발달시키는 표현 기법으로 작용할 뿐, 학습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어 학습자 스스로가 자아성찰을 하도록 하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

2)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2022, 85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풍자 교육이 학습자의 자아 성찰 태도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교육적 의의에 주목하여 풍자 교육을 연구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1) 풍자 관련 선행연구

풍자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풍자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그 외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풍자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교과서에 수록된 풍자 교육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나리(2018)는 골계, 해학과 풍자를 비교하며 풍자의 성격을 규명하고 풍자의 교과서 수록 양상을 분석한 뒤 희곡을 활용한 풍자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근삼의 희곡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풍자적 요소를 찾는 것이 수월하여 풍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³⁾

나한아(2017)는 풍자 소설 교육이 독자가 ‘통쾌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갈등과 불만의 표출,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표현 교육에 활용될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양반전」에 드러난 풍자를 분석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양반전」 단원을 확인하였다.⁴⁾

김민웅(2018)은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풍자의 성격과 풍자 소설의 교육적 의의를 분석하고, 채만식 소설의 교과서 수록 양상을 확인하였다.⁵⁾ 윤두환

3) 김나리, 「희곡을 활용한 풍자교육:이근삼 『원고지』,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68쪽

4) 나한아,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풍자 교육 양상 연구:『양반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1-82쪽

5) 김민웅, 「국어과 교과서 수록 풍자소설 분석과 교육적 의의:채만식의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138쪽

(2020)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풍자 교육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⁶⁾ 이러한 풍자 교육 관련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연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풍자 교육 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풍자 교육 외로는 주로 풍자 문학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도현(2011)은 황지우 시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현실에서 겪은 공포와 정신적 상처를 희화화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현실에 순응하는 자신을 아울러 비판하는 자기 풍자도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황지우 시인의 시를 검토하였다.⁷⁾

송현호(2002)는 채만식 소설에 드러난 풍자를 자기 풍자와 타인 풍자로 유형화하여 작품을 해석하였고,⁸⁾ 이도연(2013)은 현대 풍자문학의 전개를 설명한 후 채만식의 풍자소설부터 2000년대 유머작가인 박형서와 이기호까지 풍자소설의 계보를 알아보며 또한 한국문학의 희극성이라는 큰 틀에서 풍자소설의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았다.⁹⁾ 또한 정현덕(2002)은 김수영 문학의 시대적 환경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김수영 시인의 시에 드러난 풍자를 분석하였다.¹⁰⁾ 문학에 드러난 풍자의 의미를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들은 이 외에도 많은데,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작품과 풍자의 의미를 연결지어 풍자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풍자 개념에 대한 연구로 유병관의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유병관(1995)은 풍자를 미적 범주 안에서 파악하여 골계 안에 풍자가 존재하는

6) 윤두환, 「중학교 풍자 교육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2020, 1-59쪽

7) 전도현, 「황지우 초기시에 나타난 풍자와 웃음의 양상:『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0호, 한국시학회, 2011, 57-81쪽

8) 송현호, 「채만식 소설의 풍자유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8호, 한중인문학회, 2003, 195-215쪽

9) 이도연, 「현대 풍자소설의 계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71-291쪽

10) 정현덕, 「김수영 시의 풍자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1-151쪽

구조임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풍자와 해학의 개념을 구분하고 풍자는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 공격하는 문학 양식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풍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고, 풍자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¹¹⁾ 유병관의 연구는 이제까지 풍자 연구들에서 혼동되어 사용되던 풍자와 관련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풍자 고유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웃음 관련 선행연구

웃음 관련 연구 또한 웃음 교육과 관련된 논의와 그 외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웃음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조현일(2018), 김상한(2016)의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조현일(2018)은 웃음의 차원을 인식적, 심미적, 윤리적 차원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유머가 다양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¹²⁾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웃음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김상한(2016)은 웃음을 ‘살아있는 인간이 가진 생동감의 결여에 대한 경계나 교정’으로 이야기하며 웃음의 발생 지점이 교육과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상한이 이야기한 웃음의 교육적 역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구체적이고 사소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견제하는 것과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으며, 초등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들의 유형을 희극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¹³⁾ 이는 웃음의 교육적 역할에 주목하여 웃음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웃음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11) 유병관, 앞의 논문, 339-358쪽

12) 조현일, 「웃음·유머 교육에 대한 문학교육적 고찰」, 『국어 교육 연구』 제66집, 국어교육학회, 2018, 335-366쪽

13) 김상한, 「초등 국어교육에서 웃음 교육을 위한 텍스트 이해와 교육 방안 탐색」, 『새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67-91쪽

웃음 교육 외의 연구로는 류종렬(2006), 박상영(2010), 오덕애(2021)의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 류종렬은 웃음 자체에 대해 연구하였다. 류종렬은 베르그송의 『웃음』에 드러난 감성적, 지성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웃음을 발전시켜 그 의의가 기계적인 것, 경직된 것, 고착된 것에 대한 교정임을 확인하고, 사회성의 측면에서 인간이 웃는다는 것이 부조화에 대한 표현임을 이야기하였다.¹⁴⁾

박상영은 웃음이 한국 문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자질로 주목받아왔음을 이야기 하며 한국 시가 문학에서 발견되는 웃음 유형과 그 유형별 구조적 특징, 그에 해당하는 시가들을 확인하며 함의된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¹⁵⁾ 오덕애는 이관선의 시에 나타난 웃음을 일회성의 가짜 웃음, 정치권력과 세대비판의 웃음, 언어유의와 조롱의 웃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각 웃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¹⁶⁾ 박상영과 오덕애의 연구는 실제 문학 작품에서 웃음의 의미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웃음의 맥락’에 집중하여 풍자 교육 방안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 류동규(2010)는 풍자소설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사유의 형식’이라 얘기하며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풍자소설의 경우 풍자가 드러내고 있는 웃음의 복합적인 성격에 주목하기보다 문체적 특성이나 다양한 표현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소설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된 전체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얘기하며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풍자소설을 분석한 후 웃음의 맥락을 활용한 풍자소설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⁷⁾ 이 연구는 웃음 맥

14) 류종렬, 「웃음거리 웃음의 미학:웃음거리(Le comique)의 발생과 의미」, 『시대와 철학』 17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43-64쪽

15) 박상영, 「시조를 통해 본 한국시가의 웃음 유형과 그 미학」, 『시조학논총』 32, 한국시조학회, 2010, 243 - 281쪽

16) 오덕애, 「이관선 시에 나타난 ‘웃음’ 연구」,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외, 2021, 327-365쪽

락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풍자소설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풍자 교육을 위한 기초적 논의

1) 풍자의 개념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또는 모욕, 분노, 멸시 등의 태도를 적용하여 주제를 축소시키는 문학의 기교’이다.¹⁸⁾

이 외 연구자들이 내린 풍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신호(2007)는 풍자를 ‘상대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에 따른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유머나 과장을 사용하거나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경계하는 문학 형태’라고 정의하였다.¹⁹⁾

이화자(2005)는 풍자를 ‘부정적 사회나 개인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결점 따위를 비웃음, 조롱, 익살스런 모방, 반어법 등으로 비난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쓰이는 예술의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풍자에 담겨있는 비웃음과 냉소의 희극적 요소는 자정의 수단이 되어 풍자적 표현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대상의 부조리한 상황을 표출하고 고발하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임을 이야기하였다.²⁰⁾

2015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풍자가 처음 언급되는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

17) 류동규, 「개인발표:웃음의 맥락을 활용한 풍자소설 교육」, 『문학교육학』 3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187-210쪽

18) 권택영·최동호 편저,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문사, 1985, 257쪽

19) 지신호, 「풍자(諷刺)의 개념(概念)과 그 방법적 특성(方法的 特性)」, 『한국고전연구』 16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327쪽

20) 이화자, 「동물 만화영상의 풍자적 표현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9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5, 267쪽

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풍자’를 정의내리고 있다.

〈표 1〉 교과서별 풍자 정의

출판사	교과서에 드러난 풍자의 정의
교학사(남미영)	주어진 사실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 비꼬아서 표현하여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
금성(류수열)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비판하는 표현 방법
동아(이은영)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폭로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방식
미래엔(신유식)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비상(김진수)	비판하려는 대상을 과장,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법
지학사(이삼형)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모순을 빗대어 던지시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방식
천재(노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등을 웃음을 유발하며 비판하는 표현 방법 • 대상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돌려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
천재(박영목)	개인 또는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

여러 풍자의 정의를 살펴볼 때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 혹은 ‘모순점’을 ‘웃음’을 활용하여 비판하는 표현 기법으로 정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풍자는 비판의 측면과 웃음의 측면이 함께 드러나는 표현 기법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풍자의 두 가지 측면이 잘 드러나도록 풍자를 ‘대상이 지닌

부정적 측면이나 모순점을 파악한 후 이를 웃음을 통해 비판하는 표현 기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풍자의 정의에서부터 드러나듯이, 풍자는 비판과 웃음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풍자라는 표현 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측면의 균형을 맞추어 교육할 필요가 있다. 풍자의 비판 못지않게 풍자의 웃음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2) 풍자의 웃음'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풍자는 종종 풍자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해학과는 다르다. 풍자는 웃음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 기법이지만, 해학은 웃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연민, 동정을 느끼게 하는 표현 기법이기에 풍자와 해학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미리 밝힌다.

2) 풍자의 웃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웃음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웃음을 웃음의 여러 기준에 따라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요 목적, 주요 발생 상황, 주체, 대상과의 가치관 일치 여부, 부조화, 공유 경험'이 있다. 이 여섯 가지 기준 중 마지막 기준인 공유 경험은 이현비(2004)의 논의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이현비는 웃음을 재미의 일종으로 해석하였으며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웃음의 형식적인 요소를 '2중구조, 긴장의 축적·반전, 공유경험, 감정 방향'으로 이야기하였다.²¹⁾ 이때 이현비가 이야기하는 웃음 또한 '작품 속의

21) 이현비, 『재미의경계 : 재미에 관한 일반이론』, 지성사, 2004, 94쪽

재미'의 일종이기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도적인 웃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유경험'은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하기 적합함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을 구분하고자 한다.²²⁾ 두 웃음을 구분하여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웃음 구분 기준

	자연적인 웃음	의도적인 웃음
주요 목적	사교적, 친밀감 쌓기, 호감 드러내기, 감정 표현	공격, 조롱, 비꼬기, 교화, 자아 성찰
주요 발생 상황	일상적인 상황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
주체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없을 수도 있으며,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웃음의 주체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명확함. 웃음의 의도한 주체와 실제 웃음의 주체가 다름
대상과의 가치관 일치 여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고자 하는 경우가 더 많음	불일치해야 함
부조화	필수 조건은 아님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함
공유 경험	필수 조건은 아님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함

22) 이현비는 작품 속의 웃음을 드러난 이야기와 숨겨진 이야기의 2중구조로 해석하여 긴장감이 축적되다가 숨겨진 이야기와 드러난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까지 쌓여왔던 긴장감이 반전되면서 웃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자연적인 웃음과 구분되는 의도적인 웃음의 특징에 주목하여 교육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중구조와 긴장감의 축적 및 반전 관련된 논의는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기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제외하였다.

'감정 방향'은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의 공통적인 특징이므로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두 웃음 중 ‘의도적인 웃음’이 풍자의 웃음이며, 다음으로는 위의 기준에 따라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자연적인 웃음

우선, 자연적인 웃음은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웃음이나 모르는 사람과 첫 만남을 가졌을 때와 같이 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게 웃으면서 ‘어서오세요’를 외치는 종업원을 보았던 기억이나 상대방과 친밀감을 쌓고 싶어 웃음을 지으며 상대방에게 다가갔던 기억을 떠올려본다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연적인 웃음은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사교적인 목적’을 가진 웃음인 것이다.

자연적인 웃음은 ‘친밀감 쌓기, 호감 드러내기, 감정 표현’을 주요 목적으로 발생하는 웃음이므로 웃음의 대상과의 거리 또한 가깝거나 가까워지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 번째 구분 기준인 ‘대상과의 가치관 일치 여부’에서도 웃음의 대상이 지닌 가치관과 실제 웃음을 짓는 주체가 가진 가치관이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대상의 가치관에 동조 혹은 공감하는 의미로 자연적인 웃음을 짓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회사에서 부장님이 신입 사원에게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²³⁾ 하여 신입사원이 장단을 맞추기 위해 웃음을 짓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장님이 한 ‘아재 개그’는 신입 사원에게는 재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신입 사원은 ‘아재 개그’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장님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 사원은 사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장님의 ‘아재 개그’에 동조하면서 맞장구치는 웃음을 짓는다. 이러한 웃음이 자연적인 웃음인 것이

23)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라는 뜻으로, 재미가 없는 농담을 이르는 말

다.

다음으로 ‘주체’는 웃음의 맥락에 참여한 주체들과 관련된 기준인데, 이때 주체는 웃음을 의도한 주체와 실제로 웃음을 짓는 주체를 의미한다. ‘주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적인 웃음은 의도적인 웃음과는 달리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길을 가다 처음 만난 귀여운 아기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고 해보자. A는 아기를 보고 웃은 실제로 웃음을 짓는 주체이나, 이때 아기가 A의 웃음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연적인 웃음에서 무조건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친구인 A와 B가 길을 걸어가며 대화를 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A가 몸개그나 말장난을 통해 B를 웃기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에는 A가 웃음을 의도한 주체이고 실제로 웃음을 짓는 주체는 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텔리어가 손님에게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와 같은 말을 함과 동시에 웃음을 지을 경우 웃음을 의도한 사람과 실제로 웃음을 짓는 주체가 모두 호텔리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적인 웃음은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며, 의도한 주체가 있다고 하였을 때 해당 주체는 실제로 웃음을 짓는 주체와 일치할 수도, 불일치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다. ‘부조화’는 웃음의 대상이 부조화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기준이고, ‘공유 경험’은 웃음을 의도한 주체와 실제 웃음을 짓는 주체가 공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는지와 관련된 기준이다. 두 조건은 의도적인 웃음에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나 자연적인 웃음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귀여운 아기를 보고 웃음을 지은 A’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A는 해당 상황에서 아기를 보면서 부조화를 느끼지도 않으며 아기와 처음 만났기에 함께 공유한 경험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아기를 보고 본능적으

로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웃음은 ‘부조화’와 ‘공유 경험’을 필수적으로 충족시키지 않아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도적인 웃음이 ‘부조화’와 ‘공유 경험’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발생하는 것과는 반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2) 의도적인 웃음’에서 설명하겠다.

이러한 자연적인 웃음은 확산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웃음이 반드시 의도적인 행동일 필요는 없다. 웃음을 짓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웃음을 보는 사람은 그 웃음을 따라 하게 된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히 유쾌한 얼굴 표정이 아니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다. 웃음을 짓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웃음을 보는 사람 역시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웃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⁴⁾는 김상한의 연구에서도 웃음의 긍정적인 특징으로 사교성과 확산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2) 의도적인 웃음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의도적인 웃음은 영화, 소설, 시, TV 프로그램 등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주로 발생하는 웃음이다. 또한 웃음을 의도한 주체와 웃음을 짓는 주체가 항상 분리되어 명확하게 드러나는 웃음이기에는 웃음을 의도한 주체는 해당 작품의 창작자가 되고, 웃음을 짓는 주체는 해당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 관객, 시청자 등이 된다.

의도적인 웃음은 대상에 대한 ‘공격, 조롱, 비꼬기’를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24) 김상한, 「그림책에 나타나는 웃음과 웃음의 의미 탐색」, 『동화와 번역』 32권, 건국대학교 동화번역연구소, 2016, 43쪽

하며,²⁵⁾ 더 나아가 자아 성찰까지 이루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다. 의도적인 웃음이 ‘교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웃음의 대상이 ‘부조화’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웃음을 의도한 주체는 대상의 부조화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꼬면서 웃음을 의도하며, 부조화를 경험한 학습자는 의도적인 웃음을 짓는 것과 동시에 ‘정상적인 범위’로 대상을 돌려놓으려 행동하게 된다. 혹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규범적이고 당연한 원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고하게 된다. 즉, 웃음의 대상에 대한 교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수용자와 대상의 가치관이 일치할 경우 수용자는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크게 느끼게 되어 공격, 조롱, 비꼼의 웃음보다 공감이나 불쾌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조롱거리가 되는 대상의 부조화적인 가치관과 실제 웃음을 짓는 주체가 지닌 가치관이 불일치해야 한다.²⁶⁾

또한 의도적인 웃음에서는 ‘공유 경험’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공유 경험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대상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대표적인 풍자 소설로 인정받는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를 통해 확인해보겠다.

『태평천하』 소설은 우선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만들어 낸 소설이라는 점에

25) 본 연구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교화의 사전적 정의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다. 교육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므로 ‘교화’가 본고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6) 류종영, 「웃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뽀히너와 현대문학』 19권, 한국뽀히너학회, 2002, 233-260쪽

류종영은 웃음의 조건으로 ‘기대감’과 ‘웃음의 대상과의 거리감’을 제시하였다. 류종영은 웃음의 조건 중 ‘기대감’을 웃음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사물이 관찰자의 규범체계에 근거하여 기대한 것과 다를 때 웃음이 발생한다는 말로 설명하였다. 또한 웃음의 대상이 자신과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웃음이 자신에게는 진지함으로 느껴질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웃음의 조건에 동의하나, 단순한 웃음이 아닌 ‘의도적인 웃음’의 ‘교화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기에는 ‘기대감’과 ‘거리감’의 기준이 상대적이라 판단하여 ‘대상과의 가치관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서 의도적인 상황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소설 태평천하에서는 ‘작가’가 웃음을 의도하는 주체가 되고, 독자는 의도적인 웃음을 실제로 짓는 주체로 명확히 구분된다.

소설 속 주인공인 윤 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피해만 오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반민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생각했을 때 해당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에게는 ‘반일사상’이나 조선 민족끼리 함께 뭉치는 ‘민족의식’을 기대한다. 그러나 윤 직원 영감의 행동이나 말은 이와 너무나 반대된다. 즉, 윤 직원 영감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사이에서 ‘부조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윤 직원 영감의 부조화적인 측면을 공격하고 조롱하며 비판한다. 작가가 윤 직원 영감을 희화화하여 묘사하는 장면들을 통해 독자들은 윤 직원 영감이 조롱의 대상임을 느끼고 의도적인 웃음을 짓게 된다. 이때 독자가 윤 직원 영감과 동일하게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와 같은 긍정적인 시기로 인식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윤 직원 영감을 조롱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웃음을 짓기 위해서는 조롱거리의 대상인 윤 직원 영감과 실제 웃음을 짓는 주체가 지닌 가치관이 불일치 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인 웃음을 짓기 위해서는 독자와 작가 사이의 ‘공유 경험’이 필요한데, 『태평천하』에서는 독자들이 경험한 역사 수업이 그 바탕을 이룬다. 학교 역사 시간에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이나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가르치며, 21세기에도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독자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작가와 공유 경험을 형성하고, ‘윤 직원 영감’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며 의도적인 웃음을 짓게 된다. 즉, 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천

하』라는 소설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을 웃음을 통해 비판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적인 웃음을 짓는 것이다.

의도적인 웃음을 지은 독자는 윤 직원 영감의 행동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 직원 영감이 보여야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는 것과 동시에 자신 또한 윤 직원 영감처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적은 없었는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적은 없는지에 대한 자아성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태평천하』와 같은 풍자 소설 외에도 풍자에 대해 연구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웃음이 풍자의 웃음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유병관(1995)은 풍자가 골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본질적으로 우스운 것은 없다. 그것은 다분히 인간의 삶과 경험의 축적에 의해 성립된 어떤 가치와의 부조화나 괴리를 느끼고 발견함으로써 웃게 되는 것이다. 즉 스스로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지만 대상을 보고 웃는 사람은 그 대상을 통하여 인간의 이상과 실재 간의 모순과 충돌을 이미 직관적으로 자각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상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결정함으로써 골계성은 성립된다.’²⁷⁾고 언급하였다. 유병관이 이야기하는 ‘풍자의 골계성’이 성립되는 과정이 의도적인 웃음이 발생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병관(1995)은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의도적인 웃음의 목적을 풍자의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유병관은 ‘해학은 대상을 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상에 대해 화해나 온정의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풍자는 대상의 결점을 노골적인 공격의도를 가지고 폭로·규탄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²⁸⁾이라 말하며,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의도적인 웃음의 목적 중 ‘공격성’에 집중하여 풍자의 특징을 이야기하였다.

27) 유병관, 「풍자의 개념에 대한 몇가지 문제」, 『반교어문연구』 6권, 반교어문학회, 1995, 343-344쪽

28) 유병관, 앞의 논문, 349-350쪽

이 외에도 송재익(2018)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우스꽝스러움은 비웃음으로 변하기도 하며 이것은 또 비꼬기가 될 수도 있고, 공격성이 덧붙여져 풍자(諷刺, satire)로 이어지기도 한다. 곧 해학에 공격성을 보태면 풍자가 된다.’²⁹⁾ 주장하였고, 지신호(2007)는 ‘동양 전통에서 풍자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교정하도록 사회의 모순이나 개인의 바르지 못한 점을 비판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을 뿐 아니라, 착한 일을 서술하여 민풍을 참된 방향으로 교화하고자 하는 풍교론적 의식에서 말미암은 것’임을³⁰⁾ 이야기하며 풍자의 교화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을 구분하고, 의도적인 웃음이 풍자의 웃음임을 확인해보았다. 그러나 두 웃음은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 사이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이현비(2004)가 이야기한 ‘감정 방향’이다. 이현비가 주목한 것은 ‘재미있는 웃음’에서의 감정 방향이다. 이현비는 이야기가 반전될 때 웃음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때 ‘듣는 이를 자극하는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임’³¹⁾을 강조하며 끝내 긍정적인 감정이 웃음을 유발하는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이현비가 이야기한 ‘재미있는 웃음’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 모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웃음을 발생시킴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자연적인 웃음은 사교적인 목적을 가졌기에 그 목적성에서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웃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도적인 웃음은 부조화적인 면모를 지닌 대상을 공격하고 조롱하며 비꼬기 위한 웃음이기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교화 가능성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나아가도록 하는

29) 송재익, 「김유정 소설의 이면 읽기와 소설교육-해학성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6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131쪽.

30) 지신호, 앞의 논문, 326쪽

31) 이현비(2004) 앞의 책, 105쪽

웃음이기에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감정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웃음이 발생하기에 두 웃음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풍자의 웃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자연적인 웃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의도적인 웃음의 특징을 활용하여 풍자의 웃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Ⅲ. 2015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 풍자 관련 교육과정

풍자의 개념은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에 처음 등장한다. 이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3〉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 풍자 관련 성취기준

중학교 1~3학년 ‘국어’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학습자는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는 성취기준을 통해 풍자를 접하게 된다. 성취기준에서 언급하는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에 풍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성취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표 4〉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 풍자 관련 성취기준 해설

[9국05-09]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생각, 취향, 가치관 등을 표현한다.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 중 운율, 반어, 역설, 풍자의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문학 창작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당 성취기준의 해설에 따르면 학습자는 ‘풍자’라는 표현 기법을 학습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문학 창작 활동을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풍자라는 표현 기법을 직접 문학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풍자’라는 표현 기법을 자신의 문학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해당 표현 기법을 완벽하게 학습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형상화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러 표현법을 익히고 이를 표현할 때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풍자를 교육할 때 현대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해봤을 만한 사례’를 활용하여야 교육하여야 한다. 이는 의도적인 웃음의 기준인 ‘공유 경험’이 잘 드러나는 사례일수록 학습자가 풍자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풍자의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가 확실하게 풍자라는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면 이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와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에서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풍자라는 기법을 처음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2015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

풍자 교육의 제재는 비판과 웃음의 측면 사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앞서 2015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의 풍자 관련 성취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공유경험이 잘 드러나는 사례일수록 학습자가 풍자를 더욱 수월하게 학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효과적인 풍자 교육 제재는 비판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의도적인 웃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의도적인 웃음이 잘 드러나는 제재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편찬 시 고려해야 하는 유의점 중 제재 선정과 관련된 유의점들은 아래와 같다.

<표 5> 국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학교·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³²⁾

1. 교과서의 개발 방향

가. 공통 방향

(3)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한다.

(나)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갖는 내용,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자료나 제재를 선정하여 개발한다.

나. 과목별 방향

(5)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습 자료 및 제재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3.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가. 내용의 선정

- (4) 학습 내용은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왜곡, 비방, 옹호하거나 집필자 개인의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정한다.
- (5)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제재는 특정 시대, 지역, 분야, 작가(특정 성 포함)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정한다.

풍자의 두 가지 측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자료나 제재를 선정하여 개발한다’,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다’는 교과서 편찬 상의 유의점과 맥을 같이 한다. 풍자는 학습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경험할 사회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헬조선’과³²⁾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풍자는 대상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교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에만 집중하게 되면 학습자 자신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사람과 사회를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풍자라는 표현 기법에 웃음의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균형을 맞추어 주게 된다면 염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교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풍자의 두 가지 측면에 균형을 맞추어 교육한다는 것은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이야기하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자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것이기에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한다’,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갖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재를 선정하여 개발한다’,

32)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6, 63-65쪽, 117-119쪽 일부 인용

33)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해야 한다’는 교과서 편찬 상의 유의점은 의도적인 웃음의 기준 중 공유 경험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과도 같다. 제재가 ‘공유 경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면, 학습자가 쉽게 상황에 공감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로부터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2015 교육과정 교과서의 제재들을 분석하여 풍자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 기준은 아래의 <표 6>와 같으며, 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 9종 ‘창비, 지학사, 동아, 천재(박), 천재(노), 비상, 금성, 교학사, 미래엔’에서 풍자 교육을 위해 수록한 제재들을 확인해보았다.

<표 6> 제재 분석 기준

분석 기준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1) 본문 수록 제재

<표 7> 본문 수록 제재 분석

갈래	작품명	수록 교과서
소설	춘향전	창비
	양반전	지학사, 동아, 천재(박), 천재(노)
	이상한 선생님	비상
수필	뽕페들 다녀오십니까	금성
동화	돼지책	금성

풍자 학습을 목표로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제재로는 「춘향전」, 「양반전」, 「이상한 선생님」, 「뽕페들 다녀오십니까」, 「돼지책」이 있으며 그 중 「양반전」이 가장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교과사와 미래엔 출판사의 경우 본문에서는 풍자를 다루지 않고 교과서 활동에만 풍자 관련 작품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현재 교과서의 본문 수록 제재들을 통해서는 풍자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작품들을 살펴보자면 「춘향전」은 변 사또로 대표되는 ‘불의한 지배 계층’을 풍자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양반전」은 ‘양반들의 무능과 허례허식, 탐욕’을 풍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상한 선생님」은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인물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뽕페들 다녀오십니까」 수필의 경우 ‘뽕페에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책」은 주인공들이 가사 노동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가사 노동은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춘향전」, 「양반전」, 「이상한 선생님」은 부조화나 모순을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형을 내세워 ‘웃음을 통한 비판’이라는 풍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춘향전」에서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리가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고 핍박하는 장면을 통해서, 「양반전」에서는 신분 매매 계약서에 드러난 양반의 모습을 통해서, 「이상한 선생님」에서는 기회주의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학습자는 부조화를 느끼고 의도적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춘향전」이 풍자를 가르치기 위해 적합한 제재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몽룡이가 걸인 행색을 하고 변 사또의 생일 잔치에 참석한 장면부터 몽룡이와 춘향이의 재회 장면까지만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또한 변 사또와 각 읍의 수령들이 어사또 출포에 놀라 혼비백산

하며 도망가는 장면을 통해 풍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수록된 장면이 풍자를 교육하기에 적합한 장면이기는 하나, 해당 장면에만 주목하여 「춘향전」을 ‘풍자’ 교육 제재로 선정하는 것은 ‘몽룡과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춘향전」의 또다른 주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풍자를 교육하기 위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작품의 일부분만을 수록하는 것보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고려한 풍자 제재를 수록하는 것이 풍자를 통한 작품 이해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필 「뷔페들 다녀오십니까」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어 앞서 살펴본 고전 소설들에 비해 공유 경험을 찾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은 풍자의 ‘웃음’보다 비판’에만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에서는 뷔페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는 부분에서 풍자가 사용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욕심껏 하나하나, 본전 생각에 마음 아리지 않도록,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먹고 또 먹는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호텔 뷔페 빵 뽑기 전략’ 지침대로,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으로, 조금 더 신선한 것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줄지어 움직인다.’는 부분에 풍자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면이 있다. 뷔페에 가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음식을 양껏 먹기 위해’ 뷔페를 방문한다.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뷔페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이행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뷔페에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학습자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과도 같다. 대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지닌 학습자들은 작가의 조롱에 동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웃음을 짓지 못한다. 오히려 불쾌함을 느끼는 학습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풍자’의 경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웃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뽀빠들 다녀오십니까’는 학습자들이 풍자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돼지책’은 주인공들이 돼지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부조화를 통한 의도적인 웃음을 유발하였으며, 학습자가 들어보았을 법한 성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있어 풍자의 웃음과 비판에 균형을 맞춘 적합한 풍자 교육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수록 제재를 분석한 결과, 풍자 교육에 적합한 제재로 「양반전」, 「이상한 선생님」, 「돼지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는 현재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인쇄 매체에만 치중하여 제재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 제재 제안 및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활동 수록 제재

풍자를 가르치기 위해 본문에 수록한 제재들이 모두 ‘산문’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나의 갈래로 치중될 경우, 다양한 갈래에서 드러나는 풍자 효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부족하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단원 열기 활동, 학습활동, 대단원 마무리 활동 등에 다양한 갈래를 수록하여 풍자를 교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과서 활동에 실린 풍자 관련 제재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8〉 활동 수록 제재 분석

갈래	작품명	수록 교과서
현대시	미니 시리즈	지학사
	우리말 사랑 1	천재(박)
고전시	감장새 작다 하고~	금성
	두꺼비 파리를 물고~	비상, 미래엔
	굼병이 매암이 되야~	교학사
만평	불꽃 축제에서 화려하게 폭발하는 시민 의식(시선 뉴스)	천재(박)
	스마트폰 보는 소녀	금성
그림	스마트폰 가족	교학사
광고	엄마, 저 풀 이름은 뭐예요?	천재(노)
	경찰서 허위 신고	미래엔
만화	그레이 크리스마스, 꽃보다 미세먼지(계대욱)	지학사

먼저 현대시의 풍자를 살펴보겠다. 교과서의 내용에 따르면 「미니 시리즈」에서는 ‘느닷없이 접촉사고’, ‘느닷없이 삼각관계’처럼 ‘느닷없이~’라는 문장구조를 반복하면서 드라마의 작위적인 상황 설정에 대한 풍자가 드러난다. 그러나 과연 ‘느닷없이~’라는 문장구조를 반복함으로써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맞추었는지는 의문이다. 드라마는 어느정도 작위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시청자는 작위성을 인지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한다. 따라서 드라마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드라마 속의 작위적인 상황’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과연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즉, 드라마에 드러나는 모습과 학습자가 드라마에 대해 기대하는 가치관이 동일하여 풍자의 웃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교과서는 「우리말 사랑 1」이 습관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 모습을 ‘달리기를 하면 발목 뻐까 봐 조깅을 한다’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 걸릴까 봐 냉수로 샤워만 한다’와 같이 비꼬아서 풍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조깅’이나 ‘냉수’와 같은 단어는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에 이를 비꼬으로써 풍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아 성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깅’이나 ‘냉수’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외래어와 한자어가 한글에 포함됨을 이야기하며 해당 단어들이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래어나 한자어 대신 고유어를 사용하자는 주제를 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는 이해하나, 학습자들이 지닌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자아 성찰까지 나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풍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충족하지 못해 풍자 교육 제재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전시를 살펴보겠다. 「감장새 작다 하고~」에서는 같은 ‘새’임에도 불구하고 감장새를 작다며 무시하는 대봉을 ‘두어라 일반 비조니 너나 그나 다르랴’라는 종장의 내용을 통해 조롱하면서 의도적인 웃음이 발생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봉처럼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남을 멸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에서는 백송골과 파리를 대하는 두꺼비의 모순적인 모습과 백송골을 피해 뛰어 내렸다 자빠지는 두꺼비의 모습이 등장한다. 또한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쳐라 날랜 나일망정 어혈 질 뻘하여라’라며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의도적인 웃음이 발생한다. 두꺼비의 대사를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굼병이 매암이 되야~」는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시조는 출세하거나 성공하여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방심하였다가 권력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격, 조롱의

목적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조라 보는 것이 더 알맞다. 「굵병이 매암이 되야~」는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아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지 않다.

다음은 만평을 살펴보겠다. 교과서에 따르면 만평 「불꽃 축제에서 화려하게 폭발하는 시민 의식」은 쓰레기를 길에 함부로 버리는 부족한 시민 의식을 ‘시민 의식 화려하게 폭발!’이라는 문구로 풍자하고, 「스마트폰 보는 소녀」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여 덩굴이 자신을 감싸면서 타고 오르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태를 풍자한다고 한다. 수록된 만평은 아래와 같다.

<표 9> 교과서 수록 만평

불꽃 축제에서 화려하게 폭발하는 시민 의식	스마트폰 보는 소녀
	

「불꽃 축제에서 화려하게 폭발하는 시민 의식」에서 ‘시민 의식이 폭발’하여 쓰레기가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만평 속 상황은 전혀 ‘화려’하거나 아름답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죽놀이로 아름답게 장식되는 하늘의 모습, 이와 함께 제시된 ‘시민 의식 화려하게 폭발’이라는 글귀를 보며 학습자는 의도적인 웃음을 지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기에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맞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스마트폰을 보는 소녀」는 풍자의 웃음이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소녀를 감싸고 있는 넝쿨이 부조화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는 하나, 오히려 소녀가 해당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만평을 본 학습자들이 부조화를 느끼고 풍자의 의도적인 웃음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보는 소녀」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소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태를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만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 「스마트폰 가족」은 부조화적인 상황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은 아래와 같다.

<표 10> 교과서 수록 그림



그림 「스마트폰 가족」은 한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아 음식을 차려두

기만 하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식사라는 본래 목적을 잊은 채 모두 스마트폰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통해 부조화가 잘 드러난다. 작가는 단 한 명도 식사를 하고 있지 않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어 이들을 조롱하고, 의도적인 웃음을 유도하며,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 풍자 제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볼 공익 광고 「엄마, 저 풀 이름은 뭐예요?」와 「경찰서 허위 신고」는 아래와 같다.

<표 11> 교과서 수록 공익 광고

엄마, 저 풀 이름은 뭐예요?	경찰서 허위 신고
	

「엄마, 저 풀 이름은 뭐예요?」에서는 초록색 비닐봉지가 땅에 버려져 있는 모습과 ‘엄마, 저 풀 이름은 뭐예요?’라는 문구를 함께 제시하며 환경오염이 만연한 사회를 드러낸다. 경찰서 허위 신고 광고에서는 경찰관이 어딘가로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경찰의 발을 수화기처럼 붙잡은 채 전화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허위 신고에 발목 잡혀 적재적소에 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교과서에서는 두 공익 광고가 각각 환경오염과 허위 신고를 풍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나, 두 제재가 과연 풍자의 웃음을 반영한 제재인지 확신할 수 없다. ‘엄마, 저 풀 이름은 뭐예요?’라고 묻는 아이의 말이나 ‘잘못 건 112 신고 전화 긴급 출동의 발목을 잡습니다’는 문구가 공격이나 조롱, 비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공익 광고는 각각 ‘환경오염을 하지 맙시다’, ‘허위 신고를 하지 맙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 환경오염을 하는 사람을 조롱한다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제재는 풍자의 웃음이 소거되었기에 균형있는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만화 「그레이 크리스마스」, 「꽃보다 미세먼지」는 그림과 함께 각각 ‘온 누리에 미세먼지를..... 잿빛 크리스마스’, ‘꽃보다 미세먼지?’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표 12> 교과서 수록 만화



「그레이 크리스마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누리에 축복’, ‘온누리에 평화’ 등의 문구를 ‘미세 먼지’로 바꾸어 의도적인 웃음을 유도하고 있고, 「꽃

보다 미세먼지」는 꽃과 미세먼지를 비교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풍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두 만화 모두 주인공들이 방독면을 쓴 모습을 담아내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기에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활동에 수록된 제재들을 통해서는 본문에 제시된 작품에 비해 갈래와 풍자의 대상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에만 집중하여 웃음의 효과를 간과하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에 교과서에서도 ‘풍자’의 정확한 의미와 특징이 정의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게다가 교과서 ‘활동 제재’들은 학교별, 교사별로 활동에 실린 제재를 학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본문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실제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제까지 2015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웃음을 통한 풍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교과서에 풍자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작품만이 수록된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풍자교육 제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수록된 제재들의 경우 영상 매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풍자교육을 위해서는 영상 매체 제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VI. 풍자 교육을 위한 제재 제안

1. 제재 선정 기준

이번 장에서는 적합한 풍자 교육 제재로 ‘영상 매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영

상 매체를 제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최근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기존의 그림이나 시, 소설 등과 같은 인쇄 매체보다 영상 매체가 풍자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서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최근 학습자들은 영상 매체에 익숙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에³⁴⁾ 따르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97.4%로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 유튜브가 97.3%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 심지어는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28.1%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해본 경험도 있었다.

2022년에 발표된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의 영상물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약 5시간(294.6분)이다.³⁵⁾ 평소 학습자들이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 매체로 풍자를 교육한다면 학습자들이 풍자를 자신의 삶과 더욱 가깝게 느끼기도 쉽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 학습자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교과서 수록 제재를 영상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 매체의 경우 ‘맥락’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풍자는 여러 맥락 속에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므로 풍자 교육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영상 매체의 경우 현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자 언어나 그림보다 등장인물들의 표정, 말투, 분위기 등을

34) https://www.kfci.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46&contents_id=29ff236264724e3f8e02e544185aac03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 일부 인용(접속일자: 2023.05.13.)

35) <https://www.casene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1> 사례뉴스, 한국의 청소년, 하루 평균 영상물 5시간 시청 일부 인용(접속일자: 2023.05.13.)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31&pageIndex=2&mode=view&mgr_seq=9&board_seq=30926 영등위 보도자료, 영등위, 쏟아지는 영상물! 등급분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시점 일부 인용(접속일자: 2023.05.13.)

통해 더욱 쉽게 상황 전달이 가능하기에 학습자가 풍자의 맥락을 파악하기 쉽다. 따라서 풍자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한 제재로 영상 매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외에도 영상 매체의 경우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수월하여 풍자를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기존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갈래 외에도 다양한 갈래에서 풍자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보았던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제재 선정의 균형성’에 대해 언급하는 ‘(5)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제재는 특정 시대, 지역, 분야, 작가(특정 성 포함)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정한다.’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적합한 풍자 교육 제재를 선정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을 살펴보았을 때 유튜브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수가 가장 많았기에 학습자들이 익숙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경우, 영상 매체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누구나 풍자의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앞서 살펴본 2015 교육과정의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성취기준에서도 풍자라는 표현 기법을 배운 후 이를 직접 ‘표현’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는 풍자라는 표현 기법의 수용자와 생산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사람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한다. 크리에이터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누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학습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앞서 통계 결과로 확인한 바, 유튜브로 풍자를 학습할 경우 누구나 영상

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학습자는 자신 또한 쉽게 풍자라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 풍자 교육 영상 제재를 선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풍자교육 제재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인 ‘비판과 웃음의 균형성’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내용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활용하여 제재 선정 기준을 작성하였다. 제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3〉 제재 선정 기준

제재 선정 기준

1. 수록 제재가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2.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왜곡, 비방, 옹호하거나 개인의 편견이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3. 특정 시대, 지역, 분야, 작가(특정 성 포함) 등에 편중되지는 않았는가?

다음장에서는 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 매체 제재를 제시하여 풍자 교육 제재의 확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재 제안 및 분석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풍자’ 이해 수준에 따라 풍자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KBS, 2013.04.21. ~ 2014.07.06.) 영상을,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습자들에게는 「2032년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YouTube, 2022.6.18. 업로드) 영상을 풍자 교육의 제재로 제안하고자 한다.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 영상은 코미디언들의 개그 무대와 함께 청중

들의 반응이 함께 담기기에 해당 맥락이 풍자를 유발하는 장면인지 파악이 어려운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칭중의 웃음’이라는 타인의 반응을 함께 살필 수 있어, 해당 장면이 의도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사회적인 맥락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개그콘서트 영상은 풍자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의 수업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2032년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의 경우 개그콘서트 영상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타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칭중의 웃음 소리나 웃는 표정이 등장하지 않는다. 풍자를 일차적으로 학습한 학습자들은 즉각적인 타인의 반응을 제거한 해당 영상을 통해 스스로 영상 속에서 풍자의 대상과 표현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개그콘서트 영상에 비해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며, 해당 영상 또한 의도적인 웃음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어 풍자의 교육 제재로 삼기에 적합하다.

1) 제재 제안 사례1

(1) 제재 분석

①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KBS, 2013.04.21. ~ 2014.07.06.)은 제작자인 박 대표가 등장하자마자 드라마의 감독인 김 감독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박 대표는 시청률이 너무 낮다고 짜증을 내며 잘리고 싶냐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36)

〈그림 7〉 김 감독에게 짜증을 내는 박 대표 ①

② 김 감독을 다그친 박 대표는 ‘시청률 그래프’ 앞의 의자에 앉고, 자리에 앉자마자 PPL(간접광고)부터 물어본다. 감독은 드라마에 넣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광고임을 설명하지만, 박 대표는 감독에게 간접광고를 무조건 넣으라며 “넣어”를 연신 외친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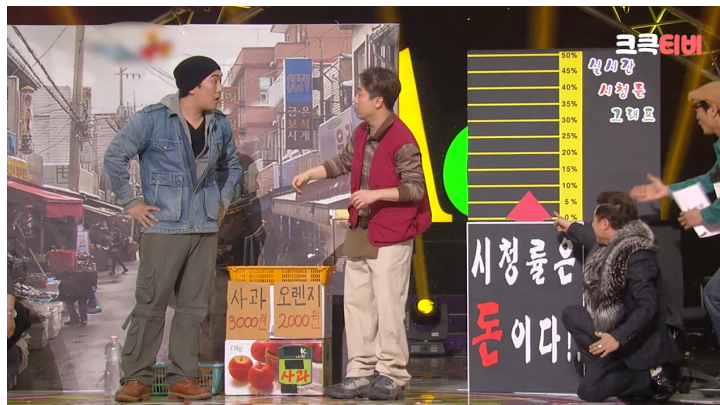
〈그림 8〉 간접광고 삽입을 강요하는 박 대표 ②

③ 드라마 촬영 장면이 박 대표 옆에서 전개된다. 드라마는 출소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하며,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앞으로 착하게 살겠

36) http://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37) http://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다'며 절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박 대표는 ‘우울하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지’ 등의 반응만을 보이며 화를 낸다. 이후 박 대표는 “자극적인 요소로 시청률 한 번 올려보자! 아들! 패륜!”을 외친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절 받으니까 좋냐? 이 양반아?”라고 소리치며 급변한 태도를 보인다.



〈그림 9〉 패륜적인 대사를 하는 아들과 시청률이 오 38)
름을 기뻐하는 박 대표 ③

④ 드라마 속의 아버지는 비록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두부를 건네고, 새 사람이 되자고 당부하며 부성애를 드러낸다. 그러나 박 대표는 드라마의 감동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에 더욱 자극적으로 드라마를 이어가려 한다. 박 대표는 “더 자극적이게 해서 시청률 한 번 올려보자!” 소리치고, 아들은 아버지가 내민 두부를 뿌리치며 아버지를 밀친다. 이번에도 박 대표는 “오케이!”를 연신외치면서 시청률이 오름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

38)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그림 10〉 관계를 회복한 부자와 자극적인 내용으로 드라마 39) 마 각색을 지시하는 박 대표 ④

⑤ 다음은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인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아들이 자신을 닮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심해본 적이 없냐고 묻는다. 박 대표는 “오케이 출생의 비밀 (시청률) 올라온다”를 외치고, 아들은 그러고보니 자신이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혼란스러워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알려줄까?”라며 반복적으로 “사실 너~”를 외친다. 출생의 비밀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39)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그림 11> ‘사실 너~’를 반복하는 배우 ⑤

40)

⑥ “사실 너~”를 반복하면서 시청률이 올라가자 박 대표는 시청률 그래프만을 쳐다보며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12> 시청률이 올라감을 기뻐하는 박 대표 41)

⑥

⑦ “사실 넌 엄마 닮았다”라는 대사를 통해 출생의 비밀이라는 궁금증이 해소되고 드라마 속의 아들과 아버지는 다시 사이좋은 부자 관계가 되었지만,

40)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41)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박 대표는 시청률이 내려간다고 좌절한다.



〈그림 13〉 시청률이 떨어짐을 안타까워하는 박 대표 ⁴²⁾

⑦

⑧ 박 대표는 이후 시청률 회복을 위해 차량 준비도 없이 교통사고를 드라마에 등장시키고자 하나, 준비된 차량이 없었기에 옆에 앉아 있던 아이스크림 판매자가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 차량으로 갑작스럽게 부자를 치며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이어서 박 대표는 더욱 자극적으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배우에게 뽕소니를 요구한다.

42)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그림 14〉 아이스크림 판매 차량으로 교통 사고가 난 43)
상황 ⑧

⑧ 박 대표는 부자가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데 정점을 찍자며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PPL을 넣자고 우긴다. 감독은 여기서 어떻게 간접광고를 넣냐고 묻지만 박 대표는 “나 박 대표야”라는 말로 김 감독의 말을 묵살하면서 드라마를 전개시킨다.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모시겠다’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애비는 늦은 것 같으니 병원은 됐고”라 말한다. 이때 갑작스럽게 박 대표가 개입하여 “지금이야!”를 외치고, 이어서 아버지는 “가까운 커피숍으로 가자”라고 말한다.

43)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그림 15>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가려 하는 아 44)
들과 이를 막는 아버지 ⑩

⑩ “아니 여기는 6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했다는 그 커피숍?”이라는 광고에 충실한 대사와 함께 박 대표가 간접광고인 커피숍의 ‘상표가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 쓰러진 아버지를 옆으로 밀며 상표를 보여주려 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림 16> 간접광고인 카페의 상표를 보여주기 45)
위해 이동하는 배우들 ⑩

44)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45)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

⑪ 박 대표와 배우들의 반응은 박 대표가 제작하고 있는 것이 드라마인지 광고인지조차 헷갈리게 할 정도이다. 죽기 직전의 아버지가 “이건 설마 이번에 새로 나온 블루베리 스무디 버블티?”를 외치고, 해당 음료를 마시며 미소를 짓는 것으로 드라마의 상업적인 활용은 정점을 찍는다. 음료를 마신 아버지가 이제 여한이 없다며 쓰러지자 박 대표는 아버지가 죽은 상황임에도 상표가 보이도록 음료 컵을 들으라 지시하고, 배우가 상표가 보이도록 컵을 반대로 들자 만족스러워하며 “그렇지 시청률 40퍼센트 가보자!”를 외치며 영상이 마무리된다.



〈그림 17〉 마지막까지 상표가 보이도록 컵을 들고 있는 배우의 모습 ⑪ 46)

(2) 제재 적합성 분석

앞서 언급한 제재 선정 기준에 따라 「시청률의 제왕」(KBS, 2013.04.21. ~ 2014.07.06.)이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한지 확인해보겠다.

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46)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쪽LCOGFLNeb7쪽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일부 캡처

-비판 요소

「시청률의 제왕」에서는 ‘박 대표’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영상 시작 부분에서 박 대표가 김 감독을 다그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돈’이다. 박 대표는 김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 드라마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내 돈!”이라며 화를 낸다.

또한 박 대표가 앉은 시청률 그래프의 하단에는 ‘시청률이 돈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특히 ‘돈’이라는 글자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박 대표의 물질주의적인 성격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박 대표는 광고주에게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되는 간접광고를 준 광고주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드라마에는 어울리지 않는 간접광고이지만 어떻게든 드라마에 넣음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간접광고를 언급할 때 박 대표의 표정이 주목해 볼만하다. 박 대표는 등장하자마자 ‘시청률이 낮아 자신이 투자한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까’하는 걱정에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간접광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감사하다며 미소를 짓는다.

이후 박 대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으로 드라마를 각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동 또한 망설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대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장면과 뺑소니를 요구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드라마 속의 아들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드라마의 도덕적인 결함을 무시한 채 시청률 그래프만을 쳐다보며 “오케이 오른다”라고 소리치고, 춤까지 추며 시청률이 오름을 기뻐한다. 또한 이후에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내고 당연하게 배우에게 도망가라고 지시하는 장면들은 계속해서 시청률 상승만을 목표로 하여 자신의 부도덕

함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 대표가 시청률에 이토록 집착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드라마를 각색하는 이유는 시청률이 오름으로써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대표가 시청률이 오른다며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시청률의 제왕」에서는 종종 여러 개의 반지를 손에 끼고 모피 목도리를 두른 모습의 박 대표와 시청률 그래프에만 시선을 주고 있는 박 대표의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이러한 클로즈업은 박 대표의 탐욕성을 보여주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박 대표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시청률의 제왕」에 등장하는 박 대표는 ‘돈’만을 위해 시청률에 집착하는 인물로, 물질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부도덕하고 자극적인 행동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다. 물질주의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등장인물을 통해 탐욕스러운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률의 제왕」은 박 대표라는 인물을 통해 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웃음 요소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의도적인 웃음’의 여러 기준에 시청률의 제왕이 부합하는지 분석하여 풍자의 ‘웃음’ 측면이 잘 드러나는 제재인지 확인하겠다. 먼저 ‘주요 발생 상황’과 웃음의 ‘주체’ 측면이다. ‘개그콘서트’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웃음을 의도한 주체가 코미디언들이며, 웃음을 짓는 주체는 방청객과 시청자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은 관객과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며 웃음을 의도한 주체와 실제 웃음을 짓는 주체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조화, 대상과의 가치관 일치 여부,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다.

드라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로 가자는 아버지의 대사,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간접광고인 카페의 로고를 보여주기 위해 신경쓰는 장면은 부조화를 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관객들이 웃는 이유는 돈을 위해 부도덕한 대사나 어울리지 않는 간접광고를 강요하는 박 대표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 대표와 동일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주의적인 사람을 조롱하고 공격하며 비꼬기 위한 목적을 가진 대사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만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요소를 드라마에 계속 등장시키는 박 대표를 보며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요시하는 탐욕적인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봤던 공유 경험을 수월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대표가 주문하는 자극적인 드라마 각색 내용을 통해 짓는 관객들과 학습자의 웃음은 의도적인 웃음이며, 이를 통해 박 대표를 비판하고 있기에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제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면을 지속적으로 접한 학습자들은 자신 또한 물질주의적인 면모를 보인 적이 없었는지를 돌아켜보고 자아 성찰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영상 조회수를 높여 이익을 얻고자 자극적인 섬네일과 내용을 담아내는 영상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학습자들 또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폭력적인 내용의 영상에 한 번씩은 노출이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내었을 때 드라마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 학습자들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 혹은 소비했던 자신을 돌아보거나 원하지 않게 폭력적인 영상에 노출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해야 올바른 것

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즉, 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 성찰이 가능한 것이다.

-영상 매체의 장점

「시청률의 제왕」은 영상 매체의 장점까지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간접광고를 막무가내로 넣으라고 하는 장면과 아들이 패륜적인 대사를 뱉는 장면, 교통사고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간접광고를 넣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린다. 방청객의 웃음 소리를 들은 학습자는 풍자의 맥락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던 박 대표가 간접광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띄는 장면에서는 ‘등장인물의 표정의 순간적인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기에 용이하다’는 영상 매체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표정 변화는 인쇄 매체에 비해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므로 학습자들이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 드라마에 자극적인 내용만을 넣는’ 풍자 맥락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제재 선정 기준 충족 여부

마지막으로 「시청률의 제왕」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편견이나 왜곡, 비방, 옹호 혹은 일부분에 편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도 가깝고 흥미를 유발하기에도 유용하여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재 제안 사례2

심화된 풍자 학습을 위한 제재로는 유튜브에 있는 ‘2032년 시리즈’ 중 「맛

있어 보이게 찍으세요」(YouTube, 2022.6.18. 업로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제재 분석

① 음식점 앞에서 꽤 오랜 시간 줄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간 커플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주문한다. 그러자 음식 주문을 받던 사장님은 “식사용으로 드릴까요 사진용으로 드릴까요”라며 커플에게 질문한다.



<그림 1> 손님에게 음식이 식사용인지 사진용인지를 묻는 음식점 사장 ① ⁴⁷⁾

② 커플은 ‘사진용’ 음식을 주문하고, 이어서 음식이 나온다. 그러나 ‘사진용’으로 나온 음식은 배를 채우기에는 매우 양이 적어보인다.

47)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영상 일부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W05Ih_18hZU&list=P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48)

〈그림 2〉 사진용 음식의 모습 ②

③ ‘사진용’ 파스타는 채 한입이 되어 보이지 않음에도 37만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이 매겨져 있다. 주인공이 파스타를 받고 이게 37만원인지를 묻자 가게 사장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음식 나왔습니다’를 외친다. 그러자 사진 기사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촬영 보조 스태프가 커튼 뒤에서 등장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주인공의 화장을 수정해주고, 촬영 보조 스태프는 조명을 설치한다. 그리고 사진 기사는 주인공 커플에게 와서 ‘인스타 업로드용인지 카톡 프사용인지’를 물어본다. 사진 기사는 주인공 커플이 인스타용 사진을 찍고자 한다고 밝히자 거기에 맞추어 렌즈를 바꾸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

48)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영상 일부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W05Ih_18hZU&list=L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49)

〈그림 3〉 사진의 용도를 묻는 사진 기사 ③

④ 심지어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찍어준 것처럼 보이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 기사는 남자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지시한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정쩡한 자세로 손을 내민다.



50)

〈그림 4〉 자연스러운 사진을 위해 어정쩡하게 팔을 뻗는 남자 친구의 모습 ④

⑤ 사진 기사는 남자친구에게 차가 있는지 묻는다.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자

49)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영상 일부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WO5Ih_18hZU&list=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50)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영상 일부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WO5Ih_18hZU&list=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촬영 스태프는 무전기로 ‘외제차’ 키와 ‘명품’ 지갑을 준비해달라 주문한다. 사진용 소품으로 차키와 지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림 5> 외제차와 명품 지갑을 준비해달라 지시⁵¹⁾
하는 스태프 ⑤

⑥ 커플 외에도 사진에 집착하는 등장인물은 또 있다. 음식점 사장님은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모니터를 살피며 음식과 커플이 사진에 잘 담기고 있는지를 확인해준다.

51)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영상 일부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W05Ih_18hZU&list=L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그림 6> 화면을 보며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주는 음식점 사장 ⑥

⑦ 영상은 사진용 파스타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던 커플이 값싼 편의점 김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그림 7> 음식점을 나와 값싼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걸어가는 커플 ⑦

다음으로는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영상이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한지 알아보겠다.

52)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영상 일부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WO5Ih_18hZU&list=쪽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53)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영상 일부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WO5Ih_18hZU&list=쪽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2) 제재 적합성 분석

앞서 언급한 제재 선정 기준에 따라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YouTube, 2022.6.18. 업로드)가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한지 확인해보겠다.

-비판 요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형편에 맞지 않게 허세를 부리거나 SNS 업로드용 사진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먼저 주인공이 주문한 ‘사진용’ 음식을 살펴보겠다. 적은 양에 플레이팅만 신경 쓴 ‘사진용’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낸다. ‘허세’를 부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속임용 사진’을 위한 파스타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진용 음식’은 주인공 커플이 보여주기식의 SNS 업로드 사진에 집착하는 상황임을 알려주며,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는 SNS 업로드를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드러난 비판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SNS에 업로드하는 사진은 가장 잘 나온 사진이어야 하기에 주인공들은 각도를 여러 번 바꾸어가며 사진을 찍는다. SNS에 보여주기용으로 올리는 사진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업로드용 사진에는 ‘외제차’와 ‘명품’ 지갑이 보여야 한다. 이때 꼭 ‘외제차’의 차키와 ‘명품’ 지갑을 준비해달라 하는 스태프의 대사를 통해 해당 제재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자신의 형편과는 다르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시킨다.

또한 비판의 대상은 주인공 커플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주며 카메라의 초점을 걱정하는 음식점 사장님 또한 SNS 업로드용 사진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는 영상 속의 주인공 커플과 음식점 사장님을 통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웃음 요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는 풍자의 웃음도 충족시키고 있는데, 의도적인 웃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해당 제재가 유튜브 영상이므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영상을 만든 크리에이터가 웃음을 의도한 주체로 명확하게 존재하고, 실제 웃음의 주체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므로 웃음의 의도한 주체와 실제 웃음의 주체가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공유경험’과 ‘부조화’ 기준을 확인하겠다. 학습자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했던 공유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속 음식점처럼 식사용 음식과 사진용 음식이 나누어지는 것이 ‘음식을 ‘먹으러’ 가는 본래 음식점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과 음식점의 사장님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잘 나오는지 신경쓰는 모습이 매우 모순적임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SNS를 둘러보다 보여주기식의 사진을 본 직·간접적인 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SNS에 업로드할 사진에 집착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외제차’ 키와 ‘명품’ 지갑을 사진에 담아내는 커플의 모습이 매우 부조화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영상 말미에 편의점 김밥을 먹으면서 길을 걷어가는 커플의 모습을 통해 SNS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며 부조화적인 상황을 한 번 더 보여준다.

영상을 만든 크리에이터는 이러한 부조화를 ‘조롱’하고 ‘비꼼’으로써 의도적

인 웃음을 유도하고 있다. 즉, 의도적인 웃음의 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영상 속 주인공 커플처럼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웃음을 짓게 된다. ‘대상과의 가치관 불일치’라는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크리에이터의 의도대로 풍자의 웃음을 지은 학습자들은 이후에 혹시 자신 또한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쓴 적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다. 자신들이 SNS에서 보던 선망의 대상들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소년기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인식하는 시기인 만큼 자신 또한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신경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한 적은 없는지를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는 의도적인 웃음의 교육적인 목적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영상 매체의 장점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는 사진 기사, 촬영 보조 스태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음식점 사장의 진지한 표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주인공 커플의 허세 넘치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주인공이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전문적으로 동조한다. 영상 매체는 이러한 주변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이 인쇄 매체에 비해 더욱 생생하게 잘 전달된다. 이는 곧 주인공 커플을 풍자하는 상황 맥락을 잘 드러내어 효과적인 풍자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영상 말미에 주인공 커플이 맛있다고 웃으며 편의점 김밥을 먹는 모습은 ‘사진용 음식’이 배를 채우는 본래 음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학습자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실과 SNS 업로드용 사진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주인공을 풍자하는 맥락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 외 제재 선정 기준 충족 여부

또한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는 학습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왜곡, 비방, 옹호, 편견, 편중 등의 요소를 담고 있지 않아 풍자 교육 제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풍자 교육 제재로의 가치

앞서 제시한 풍자 교육 제재로 풍자를 교육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자라는 표현 기법의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앞서 제안한 제재는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측면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따라서 풍자의 정의인 ‘대상이 지닌 부정적 측면이나 모순점을 파악한 후 이를 웃음을 통해 비판하는 표현 기법’에 충실하여 풍자 학습이 가능하다.

「시청률의 제왕」은 물질적인 면모를 보이는 등장인물을 공격, 비꼬는 웃음을 통해 비판하고,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허세를 부리는 등장인물을 조롱하는 웃음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두 제재는 풍자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담아내고 있기에 풍자의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풍자를 학습함으로써 자아 성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앞서 제안한 교육 제재를 통해 풍자를 학습한 학습자들은 제재 속에 담긴 풍자의 웃음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자아 성찰을 하는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다. 자아 성찰은 교육과정에서도 핵심역량으로 언급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

하는 역량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률의 제왕」을 통해서는 인간의 물질주의적인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풍자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습자의 삶과 풍자가 가깝다는 것을 교육할 수 있다. 실제로 풍자는 교과서 속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활용된다. 영상 매체 제재로 풍자를 학습한 학습자는 풍자라는 표현 기법이 교과서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된 풍자 기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자신 또한 풍자라는 표현 기법을 활용하는 생산자가 되며 지속적으로 풍자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이제까지 풍자의 웃음의 교육적인 의미를 통해 비판과 웃음의 균형이 이루어진 풍자 교육이 필요함을 알아보고, 실제 교과서에서 풍자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풍자 교육의 효과를 더욱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영상 제재를 제안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풍자라는 표현 기법은 비판과 웃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표현 기법이다. 이때 풍자의 웃음은 의도적인 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웃음과 구분되는 의도적인 웃음의 기준으로는 ‘주요 목적, 주요 발생 상황, 주체, 대상과의 가치관 일치 여부, 부조화, 공유 경험’ 6가지가 있다. 풍자의 웃음은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는 대상을 공격, 조롱, 비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 성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풍자 교육은 풍자의 비판

적 측면과 웃음의 측면에 균형을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풍자의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대상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되고 교화 가능성이나 자아 성찰까지 이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비판과 웃음의 균형이 잘 맞추어지지 않고 비판의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영상 매체로의 제재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3장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를 제안하고 그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제안한 제재는 「시청률의 제왕」(KBS, 2013.04.21. ~ 2014.07.06.) 영상과 「2032년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YouTube, 2022.6.18. 업로드) 영상이다. 해당 제재 두 가지는 풍자의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효과적인 풍자 학습이 가능하고, 자아 성찰까지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인쇄 매체에 비해 풍자 맥락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영상 매체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학습자들이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삶과 풍자가 가깝다는 것 또한 교육할 수 있어 효과적인 풍자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풍자시나 풍자소설과 같이 관련된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에서 주로 풍자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풍자의 비판과 웃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적인 내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과 효과적인 풍자 교육 제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풍자 교육 제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내기 어렵기에 제재를 활용한 실제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적합한 제재를 통해 균형잡힌 풍자 교육을 하여 학습자가 풍자의 진정한 의미를 학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①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2022.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6, 63-65쪽, 117-119쪽 일부 인용

교학사, 『국어』, 남미영, 2019.

금성, 『국어』, 류수열, 2019.

동아, 『국어』, 이은영, 2020.

미래엔, 『국어』, 신유식, 2020.

비상, 『국어』, 김진수, 2019.

지학사, 『국어』, 이삼형, 2019.

천재(노), 『국어』, 노미숙, 2019.

천재(박), 『국어』, 박영목, 2019.

② 학술 논문

김상한, 「그림책에 나타나는 웃음과 웃음의 의미 탐색」, 『동화와 번역』 32권,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6, 43

김상한, 「초등 국어교육에서 웃음 교육을 위한 텍스트 이해와 교육 방안 탐색」, 『새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67-91

류동규, 「개인발표:웃음의 맥락을 활용한 풍자소설 교육」, 『문학교육학』 3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187-210

류종렬, 「웃음거리 웃음의 미학:웃음거리(Le comique)의 발생과 의미」, 『시대와 철학』 17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43-64

류종영, 「웃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뽀히너와 현대문학』 19권, 한국뽀히너학회, 2002, 233-260

박상용, 「시조를 통해 본 한국시가의 웃음 유형과 그 미학」, 『시조학논총』 32, 한국시조학회, 2010, 243 - 281쪽

송재익, 「김유정 소설의 이면 읽기와 소설교육-해학성을 중심으로」, 『한국

- 어문교육』 26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131
- 송현호, 「채만식 소설의 풍자유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8호, 한중인문학회, 2003, 195-215
- 오덕애, 「이선관 시에 나타난 ‘웃음’ 연구」,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외, 2021, 327-365쪽
- 유병관, 「풍자의 개념에 대한 몇가지 문제」. 『반교어문연구』 6권, 반교어문학회, 1995, 343-344
- 이도연, 「현대 풍자소설의 계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71-291
- 이화자, 「동물 만화영상의 풍자적 표현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9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5, 267
- 전도현, 「황지우 초기시에 나타난 풍자와 웃음의 양상: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0호, 한국시학회, 2011, 57-81
- 조현일, 「웃음·유머 교육에 대한 문학교육적 고찰」, 『국어 교육 연구』 제 66집, 국어교육학회, 2018, 335-366
- 지신호, 「풍자(諷刺)의 개념(概念)과 그 방법적 특성(方法的 特性)」. 『한국고전연구』 16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327

③ 학위 논문

- 김나리, 「희곡을 활용한 풍자교육:이근삼 『원고지』,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68
- 김민용, 「국어과 교과서 수록 풍자소설 분석과 교육적 의의:채만식의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138
- 나한아,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풍자 교육 양상 연구: 『양반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1-82
- 윤두환, 「중학교 풍자 교육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2020, 1-59
- 정현덕, 「김수영 시의 풍자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1-151

④ 단행본

- 권택영·최동호 편저,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문사, 1985, 257.
- 이현비, 『재미의경계 : 재미에 관한 일반이론』, 지성사, 2004.

⑤ 웹사이트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46&contents_id=29ff236264724e3fbe02e544185aac03 일부 인용(접속일자: 2023. 05. 13.)

사례뉴스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1> 일부 인용(접속일자: 2023. 05. 13.)

영상물 등급 위원회

https://www.kmr.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31&page=2&mode=view&mgr_seq=9&board_seq=30926 일부 인용(접속일자: 2023. 05. 13.)

유튜브 “개그 콘서트 시청률의 제왕”

https://www.youtube.com/watch?v=qgHNstAnBsY&list=PLCOGFLNeb7pzs2_j9MoUE1aAuyGjU7Q4w&index=3 (접속일자: 2023. 05. 13.)

유튜브 “맛있어 보이게 찍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WO5Ih_18hZU&list=PLBiofKMrKojhy49UyBXTLm1sQjLaffkSR&index=29 (접속일자: 2023. 05. 13.)

ABSTRACT

Satire education through laughter

Hong, Eunyou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ducational meaning of 'laugh' in satirical education and to propose satirical education sanctions suitable for learners living in the present era. Chapter II of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sati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ntional laughter', which is the laughter of satire, and confirms that satire is an expression technique with both aspects of criticism and laughter. In addition, the laughter of satire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can move toward self-reflection. Therefore, satirical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 balance between criticism and laughter.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2015 curriculum and textbook satire education sanctions in Chapter III,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textbook contained a number of sanctions that did not balance the two aspects of satire. Accordingly, feeling the need for a proper proposal for sanctions on satirical education, Chapter IV proposed two new

sanctions on satirical education.

Sanction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whether they were balanced on two aspects of satire, and two YouTube videos were proposed as sanctions to enhance educational effects in consideration of recent learners' characteristics of familiarity with video media. Education of satire with suitable video media sanction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learn satire effectively, lead to self-reflection, the ultimate purpose of satire, and continuously learn satire by recognizing that it is close to one's life. In addition, video media is easy to grasp the context of satire, so satire education using video media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educational effect than the print media in current textbooks.